

## 우즈베키스탄 동포 정주 70주년 기념행사 축하 메시지

우즈베키스탄 정주 70주년 기념행사를 축하드리며, 동포 여러분께 우리 국민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정주 70년의 역사는 가슴 아픈 역사이자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조국이 주권마저 상실했던 시절, 여러분은 러시아로 그리고 다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애환과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 더 땀 흘리며 노력해서 우즈베키스탄 사회의 존경받는 일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동포 여러분을 우리 국민은 큰 감동과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 대한민국은 이제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와 스스로를 지킬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민주인권국가로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모국에 대해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 산업 연수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드는 등 모국 발전의 혜택을 동포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이 수교 15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양국은 많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2006년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자원·에너지·IT 등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더욱 믿음직한 친구로서 함께 발전해 가는 데 동포 여러분이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행사를 거듭 축하드리며,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